

3세대 동거주택 계획을 위한 청소년층의 동거의식 조사

송 민 정*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윤 정 속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급속하게 증가한 노인인구의 주거문제 해결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서구에서는 공적 부양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부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주거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3세대 동거주택이 노인들의 주거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와는 달리 현대에는 청소년층인 손자녀세대의 생활패턴이 가족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3대 동거에 대한 의식은 3대 동거에 대한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으로 대상으로 한 3세대 동거 및 동거주택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가족생활에 있어서 노부모 부양의식, 미래의 가족형태 등을 알아봄으로써 3세대 동거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 3세대 동거시 선호하는 주택유형, 지역, 주택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였으며,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113명의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부모님과 동거 경험, 장래 노부모와의 동거의식, 장래 3대 동거 시 선호하는 주거, 조사대상자의 미래의 노후 생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SPSS 10.0 통계처리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자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응답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편이 많았으며, 출생순위에 따른 동거의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른 순위에 비해서 출생순위 1순위가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동거의식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족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부모님과 동거경험이 부모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동거 시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는 도심근교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규모는 30~50평형의 중대형 평형을 원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층에서 출생순위 1순위의 남자를 중심으로 한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3세대 동거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현실에 알맞은 3세대 동거주택의 개발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정책 지원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